논어 14편 헌문 22장 · 원문·풀이

陳成子弒簡公。孔子沐浴而朝，告於哀公曰：「陳恆弒其君，請討之。」公曰：「告夫三子。」孔子曰：「以吾從大夫之後，不敢不告也！君曰：『告夫三子』者！」之三子告，不可。孔子曰：「以吾從大夫之後，不敢不告也！」

독음 · 진성자시간공 공자목욕이조 고어애공왈 진항시기군 청토지 공왈 고부삼자 공자왈 이오종대부지후 불감불고야 군왈 고부삼자자 지삼자고 불가 공자왈 이오종대부지후 불감불고야

쉬운 풀이(요약) · 진항이 임금을 죽이자 공자는 목욕재계하고 토벌을 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전직 대부로서 알릴 의무를 다했다고 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陳 늘어놓을 진 진 / 成 이룰 성 성 / 子 아들 자 / 弒 윗사람죽일 시

簡 대쪽 간 간 / 公 공변될 공 공 / 孔 구멍 공 공 / 沐 머리감을 목 목

浴 깨끗이할 욕 욕 / 而 말이을 이 / 朝 아침 조 조 / 告 알릴 고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 哀 슬플 애 애 / 曰 가로 왈 / 恆 恒의 本字 항

其 그 기 / 君 임금 군 / 請 청할 청 청 / 討 다스릴 토 토

之 갈 지 / 夫 지아비 부 부 / 三 석 삼 삼 / 以 써 이 이

吾 자기 오 오 / 從 좇을 종 종 / 大 클 대 대 / 後 뒤 후 후

不 아닐 불 / 敢 감히 감 감 / 也 어조사 야 / 者 놈 자

可 옳을 가 가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